

한국 전력공사 올해 사업계획

한국전력공사 기획처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핵심사항만을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기획본부

중 장기 전략경영 계획과제 착실히 추진

지난해 우리는 회사의 미래 발전방향을 담은 2015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을 발표하였다. 세계 최고의 글로벌 종합에너지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사업영역, 경영시스템, 영업, 재무, 인력의 5대 분야별로 전략목표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경제, 환경, 사회, 인간 4대 부문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 UN 산하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고 UN의 세계협약(Global Compact)에도 가입하여 인권과 윤리 측면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내부경쟁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독립사업부제 도입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전사적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재무시스템의 혁신에도 노력한 한해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회사가 정부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데 주도적으로 기여하였고,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Moody's사로부터 A2 신용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회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는 한해가 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우선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의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전사적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ERP 시스템 도입과 연계하여 회사의 전략과 예산 및 부문별 사업계획이 체계적으로 연계되는 통합경영계획 체제도 갖추고자 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착수한 지속가능경영을 체계화하고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독립사업부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회사 내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내부경쟁이 가능한 사업부제를 시행하여 유연한 조직으로 탈바꿈해 나가고자 한다. 이외에도 혁신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조직의 역량을 모아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활동기준원가관리(ABC)체제 구축, 전사적 위험관리(ERM) 조기 안정화 등 가치경영을 발전시켜 나가고 성과에 기반한 예산제도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각종 cost 및 risk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달재원과 차입선을 다변화하고 금리나 만기구조, 통화구성 Portfolio를 재정립하여 회사의 신용등급을 꾸준히 개선해 가고자 한다.

또한 전력그룹의 자율 책임경영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전력그룹 경영체제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경영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대신 평가를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책임경영을 구현하고 출자관리 체제를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나가는 한편, 전력그룹의 상생발전을 위해 국책사업 공동 대응 및 연료구매 협력 확대 등 시너지 제고활동도 적극 지원,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

관리본부

변화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역량 확충에 집중

지난해는 창사 이래 최초로 조직의 벽을 허무는 '직군간 교차보직' 과 공기업 최초로 '3직급 발탁승진' 실시 등의 인사혁신을 비롯해 과거의 불합리한 의식과 관행을 혁신하고 각종 제도와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여 성숙된 경영을 실천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관리본부는 회사의 핵심자원인 한전인 모두가 희망과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영역에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다 즐겁고 신나는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관리 구현

성과와 직무중심의 인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주의 인사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겠으며, 발탁승격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그리고 직군간 교차보직을 확대하여 내부의 벽을 허무는 인사관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전략적 인재양성을 위해 해외지역전문가 양성 확대와 계층별 리더십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교육시스템도 개선하여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채용방법을 다양화하고 채용도구도 개선할 생각이다.

또한 직원의 배치 보직이동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전력그룹사간 유기적 인력교류를 실시하는 등 인적

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신바람 나는 일터 조성을 위한 급여·복지제도 추진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복지 Needs가 날로 증대함에 따라 여가 문화활동 및 자기계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최대한 확보하며, 다각적인 사택확보를 통한 주거안정 도모와 생활연수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임금체계도 성과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그리고 2006년 노동관계법 개정예 따라 노사관계 로드맵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단체협약 갱신의 조기 체결 노력과 더불어 재해 재난대비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안전문화 구축에도 노력을 경주할 생각이다.

자재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중소기업 지원

자재분야는 효율적인 자재관리를 위해 조달물류체계와 재고관리 및 계약시스템을 혁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수요자 중심의 조달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는 동시에 기자재 품질 향상과 경제적 조달이라는 당면 기본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전력그룹사 차원에서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겠으며, 2005년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성과공유제를 우리 회사 고유의 성과공유 모델로 정착 발전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성공적 ERP구축에 정보화 역량 집중 지원과 u-KEPCO 환경 조성

ERP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미전환 시스템의 완벽한 연계 및 ERP로의 데이터 전환 등 지원업무에 정보화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또한 ERP 운영용 전산설비를 적기 마련하여 ERP 구축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는 일상생활 속의 유비쿼터스 환경을 고객중심의 “u-KEPCO” 구현의 원년으로 삼아 고객 접점창구인 사이버지점의 모바일 정보서비스, 고충민원처리시스템 통합 등 한 단계 높은 고객서비스를 창출하고자 한다.

미래 업무환경에 대비한 최적의 정주여건 조성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지난해 6월 발표되고, 11월에는 나주시가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예정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혁신도시로의 본사이전에 대비하여 미래 업무환경에 직원들이 쾌적한 근무환경과 우수한 정주여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본사 사옥, 사택과 합숙소, 그리고 각종 부대 복지시설에 대한 기본설계를 충실히 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직원 설문을 통한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외사업본부

글로벌 에너지그룹을 향한 힘찬 전진

2005년 대외사업본부는 해외사업을 비롯하여 대북협력사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속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우선 해외사업분야에서는 자원개발을 연계한 나이지리아 발전소 건설운영사업의 성공적 추진, 말라야/일리한사업에 이은 필리핀내 신규 프로젝트인 세부발전소 건설사업 착공, 국내 기업 최초로 중국내 풍력사업 수주, 그리고 리비아 등 송배전분야 사업수주 등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한 해였다. 또한 대북협력사업 분야에서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대표 모델로서 활성화 되고 있는 개성공단에 적기 전력공급 및 이를 뒷받침 할 한전 개성지사 개소로 미래 잠재 전력시장 개척에 첫발을 내 디렸으며, KEDO사업도 사업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여 왔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2006년 대외사업본부는 글로벌 에너지 그룹으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해외사업 역량 결집

대외사업본부는 전사 경영방침에 적극 부응한 지속적 자체 혁신노력을 통해 해외사업 역량 결집을 해 나갈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성공경험 내부축적, 해외사업분야 글로벌 전문가 양성, 전력그룹사 및 국내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를 통하여, 외부적으로는 해외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대, 국제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글로벌 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해외사업 역량강화에 노력할 것이다.

진출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신규시장 진출 모색

해외 운영자산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말라야/일리한 발전소의 효율적 운영과 중국 무척열병합 발전소('06.10월) 및 감속성 풍력발전소('06.8월), 필리핀 세부발전소의 적기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발전사업분야에서는 레바논 운영사업을 거점으로 국제적 우수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동 지역 대규모사업 수주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중남미 등 시장확대를 위한 모색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자원개발 분야에서는, 나이지리아사업의 경우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안정적 사업추진을 계속하되 “자원개발+전력플랜트 수출”이라는 한전의 특화된 해외사업모델을 통한 Blue Ocean 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호주 등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갈 계획이다. 아울러, 송배전 사업분야의 경우, 리비아 등 진출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통해 한전의 기술력을 입증하고 이를 연계한 후속사업 개발을 모색할 것이다.

대북협력사업의 차질없는 수행과 새로운 가능성 모색

대북협력사업분야에서는 KEDO사업의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성공단 기설 선로의 효율적

운영 및 본단지 100만평 공급용 154kV 송변전설비 본격 건설과 함께 추가로 개발되는 200~300만평 전력 공급 대비를 통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이루어냄으로써 향후 국가적 남북화해협력기반은 물론 나아가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의 토대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대외사업본부는 2006년을 “글로벌에너지그룹”의 비전에 걸맞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한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영업본부

구성원 모두의 역량결집, 고객감동 경영 실현

지난해 영업본부는 전 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기업 고객만족도 7년 연속 1위’라는 빛나는 업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지난 여름 기록적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수급 안정을 기하였으며, 중별간 요금격차 완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강화를 고려한 5년만의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올해는 고객감동 경영의 실현을 모토로 삼아 지속적인 경영혁신 및 윤리경영의 확립, 사업부제 조기정착 지원, 미래지향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성원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적인 전력회사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객지향의 선진서비스 제공 및 고품질 전력공급

기업의 존재이유가 고객임을 명심하여 고객의 믿음과 지지를 얻는 기업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시스템을 정비하여 고객편의를 증진시키고 고객관리 업무를 개선함은 물론 고객접점에서의 현장서비스를 혁신함으로써 고객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또한 환경친화형 배전설비를 구축함은 물론 예방정비 활동을 통하여 고품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수요관리 현장체험을 확대하여 수요관리 사업추진 기반을 강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독립사업부제 성공적 정착 지원

우리회사의 당면과제인 독립사업부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영업본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업부제의 원활한 추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함은 물론 최적 배전설비운영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사업부제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전력투구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업무의 권한을 사업부로 대폭 위양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는 실질적인 독립사업부제가 실현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한해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미래지향적 시스템 구축

올해에는 최첨단 IT기술을 접목하여 언제 어디서나 업무처리 및 서비스가 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차세대 판매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Upgrade하고 PDA와 RFID를 이용하여 현장 및 설비관리를 혁신하는 한편 ERP와의 성공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아울러 배전설비 운영환경의 IT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영혁신 지속 추진 및 윤리경영의 확립

지난해에 거둔 성과를 더욱 내실화 하여 영업본부 전 사업장에 경영혁신과 윤리경영을 꽃피게 함으로써 '깨끗한 기업 활기찬 한전' 구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서비스품질을 향상하고 기술을 혁신하여 사업소 직원들이 편하고 원활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절차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부패척결에 앞장서 클린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 할 계획이다.

올 2006년은 독립사업부제의 도입과 ERP 추진 등 변화와 혁신이 가일층 요구되는 한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영업본부는 '고객감동 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독립사업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여 한전이 세계 최고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는데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

송변전본부

경영 및 기술혁신 지속 추진, 'Clean 송변전본부' 정착

'Clean 송변전본부' 정착과 새로운 경영패러다임 구축에 앞장설 터...

송변전본부는 지난 한해를 'Clean 송변전본부' 원년의 해로 선언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본부 구현에 온 힘을 기울였고 전력설비 확충 사업의 100% 달성과 안정적 전력공급으로 기업의 고객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변전설비용량 2억kVA를 달성하는 대역사를 완수함으로써 세계 5위권 전력회사로 부상하는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KBS「신화창조의 비밀」방영을 통하여 전력사업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

2006년에도 직원들의 저력과 역량을 집중하여 경영 및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본부, 개혁지향의 선진기술 본부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하는 경영체제 구축

금년에는 무엇보다 성공적인 ERP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BPO 개선과제를 조기에 추진하고 기존의 송변전분야 정보화 시스템과 ERP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독립사업부제 추진이 전력계통 운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철저한 대비로 새로운 경영조직의 정착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또한, '송변전 기술활용 로드맵'의 내외부 공유 확산,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담기술 제 2단계 추진 등 송변전기술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분야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대용량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대북송전 등을 대비한 최적의 계통계획 수립과 전력시장 구조변화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그 간 다져온 세계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리비아 등 해외사업에도 박차를 가하여 전력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것이다.

전력공급 신뢰도 제고 및 안정성 확보

송변전분야 주요책임인 고품질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하여 송변전설비를 적기에 확충하고 유사고장 재발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및 사후관리 강화, 안정성 확보대책 등을 시행하고자 한다. 또한, 기자재 품질 향상으로 설비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시간 웹기반 설비감시시스템의 구축, 산악지 특수차량 개발, 큐비클형 전력용콘덴서 개발 등 적극적인 신기술, 신공법의 개발·적용을 통해 경제성 및 공급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친환경, 윤리경영, 신성장동력 확충 등 지속가능경영 기반 조성

환경피해 최소화 공법을 확대 적용하고, '전력영향평가시스템' 개발, '허브형 변전소' 건설 등 환경 중시 정책을 추진하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공감대 조성을 위해 산불예방 캠페인, 전자계관련 연구 시행 등으로 전자계 정책의 투명성과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안정적인 전력설비 운영지원을 위하여 전력IT 기술을 고도화하고 전력통신관련 신규사업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기반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자체 청렴도 이행실태 점검, 부조리 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Clean 송변전본부」정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 실천에 앞장설 것이다.